

## 不渡危機 有望中小企業 긴급經濟安定資金 支援

商工部는 최근 中小業界의 자금난 여파등으로 技術集約型 有望中小企業들조차 倒産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한번의 資金支援만으로 희생이 가능한 技術集約型 中小企業들을 위해 긴급經營安定資金을 마련, 내년초부터 支援기로 했다.

그러나 構造的 要因으로 희생전망이 불투명한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이 資金을 支援하지 않을 方針이다.

이같은 긴급經營安定資金 支援은 자금규모의 한계를 감안, 業種中心이 아닌 個別業體別로 집중지원하고 담보가 부족한 경우도 사업전망을 감안, 業種中心이 아닌 個別業體別로 집중지원하고 信用支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産業研究員과 學界專門家들로 구성된 評價團을 中小企業振興公團내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支援對象業體의 사업전망과 技術開發能力 및 水準등을 정밀심사, 支援業體를 選定토록 할 方針이다.

긴급經營安定資金의 지원규모와 지원금리 및 기간등을 이달중 經濟企劃院등 관계부처

와의 協議를 통해 확정할 계획인데 金利는 현재의 金利引下趨勢를 감안, 낮은 水準에서 결정될 것을 알려졌다.

또 國產開發후 외국의 低價공세로 경영난에 처한 경우는 긴급經營安定資金 支援과 함께 輸入品에 대한 調整關稅 긴급발동등 지원책도 함께 펼 方針이다.

中小企業緊急經營安定資金은 '中小企業의 經營安定 및 構造調整 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근거규정이 이미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자금책정이 되지않아 支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긴급經營安定資金의 지원대상은 輸出減少 또는 輸入增加등으로 中小企業經營상의 심각한 隘路가 발생했거나 原資材確保 곤란, 關聯企業의 노사분규로 休閉業 또는 操業中斷의 事由가 발생했을 경우로 명시돼 있는데 상공부는 이같은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계속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일단 지원대상에서 除外할 方針이다.